

# AIDS News

## 여성 에이즈 환자 90% 남편이 옮겨-말레이시아 에이즈협회 회장 보고서 통해 밝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진 여성환자 가운데 90%는 남편에게서 감염됐다고 마리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에이즈협회 회장이 마닐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 90%가 일생에 단 한 사람의 남자인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한 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딸인 마하티르 회장은 창녀들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그룹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강간 등 강요된 성관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마하티르 회장은 "이들 여성이 에이즈 환자와 갖는 성관계를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15~24세에 걸친 젊은 여성의 경우 자궁의 경장부(頸狀部)가 발달하지 않고 질에서 비교적 분비물이 덜 나오는 관계로



에이즈 퇴치에 관한 낙서/남아프리카

에이즈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마하티르 회장은 지적했다.

그녀는 전세계 에이즈 감염자 1천 7백만명 가운데 6백만명이 여성이고 여성 감염자는 오는 2000년까지 1천 3백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성을 통한 감염이 여성을 통한 감염보다 2~4배 가량 높다고 덧붙였다. (마닐라 로이터=聯合)

## 에이즈로 아시아 국민 수명 급감-태국 국민 평균수명 74세서 2021년엔 44세로

에이즈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태국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현재의 74세에서 오는 2021년에는 44세로 30년 가까이 대폭 줄어 들 것이라고 아난드 파나라춘 태국 총리가 경고했다.

아난드 총리는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회의 마지막날 연설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태국 정부는 에이즈 문제를 단순한 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국가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에이즈로 인해 오는 2000년까지 태국 국민총생산(GNP)은 약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에이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서 "이들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병의 확산이나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결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 각국에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3백만명에 이른다고 소라아트 쿨린프라툼 태국 보건부 차관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및 베트남 인접 빈국들은 앞으로 에이즈 확산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인들의 연간 에이즈 감염률은 오는 200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국의 감염률을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엔은 산하 6개 기구를 통합해 유엔에이즈기구(UNAIDS)를 발족시키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치앙마이=聯合)

## 에이즈엔 적도 없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동 캠페인

중동의 평화분위기를 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처음으로 에이즈 퇴치를 위한 합동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에이즈 퇴치 합동 캠페인에 나선 약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천개의 콘돔들과 진단을 번거로운 공황에서 배포했으며 이같이

# AIDS News

은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과 요르단에서도 곧 개최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측 에이즈 퇴치운동 지도자인 이본 쉐케르는 "공동캠페인은 평화회담 진척으로 개방된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텔아비브와 암만, 카이로 등을 오가는데 1시간이 채 안걸려 이들 지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 에이즈 감염자 478명 20, 30대 76%—서울, 부산, 경기도에 집중

국내 에이즈감염자가 20, 30대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 국립보건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4백 78명으로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1백 82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76.1%를 차지했다. 연령별 감염자 수는 40대가 63명이며 50대 이상도 29명에 이르러 에이즈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감염자는 여자 1명을 포함해 18명이나 됐으며 수직감염 등에 따른 10세 미만 감염자도 4명이 발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백 8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백 12명, 경기도 41명, 경남 35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이 33명이며 부산 3명, 경기도 7명, 경남 6명의 순이다.

감염원인은 성접촉이 4백 2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국내에서 1백 49건, 국외에서 1백 81건, 동성애 92건 등이다. 외국에서 혼한 마약 등 불결한 주사기를 돌려쓴 데 따른 감염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감염

자의 출산과정에서 태아에 감염된 수직감염은 1건이 보고됐다.

감염자 가운데 가장 많은 1백 32명은 해외취업자였으나 접대부와 위생업 종사자가 88명, 주부 28명으로 밝혀졌다. (서울=聯合)

## 성병치료 받은 사람 에이즈 위험 감소—치료 안받은 성병환자보다 42%나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와 같은 성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을 상당히 줄이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탄자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은 영국의학잡지 랜싯에 발표된 보고

서에서 성병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성병환자들보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42%나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탄자니아인들을 상대로 이 조사를 실시한 런던 열대의학 대학원의 리치드 헤이스 교수는 세계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성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전염될 가능성은 쌍방의 어느 한쪽이 성병에 걸려 있을 경우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에이즈와 성병은 모두 아프리카에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질병의 대부분은 이성간의 성관계에서 전염되고 있다. 조사 담당자들은 성병



가족, 자원봉사자 그리고 의료종사자의 따뜻한 간호가 에이즈감염자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 AIDS News

치료를 받은 성인 6천명 중 2년 동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16%인데 비해 성병에 걸려 있으면서 치료받지 않은 성인 6천명 중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1.86%였다고 지적. 이를 일생으로 따지면 성병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2%가 적다는 계산이 된다고 말했다. (런던 로이터=聯合)

## 태국 부모 에이즈 감염으로 고아 아닌 고아 급증-2000년 100만명 달할듯

오는 2000년에는 매년 2만 2천여명의 태국 아동들이 부모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아가 될 것이라고 에이즈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 호놀룰루 소재 이스트 웨스트 센터의 에이즈 전문가 팀 브라운씨는 이날 치앙마이에서 속개편 제3차 아태에이즈문제 국제회의에서 태국적십자사 에이즈 전문가 웨라시트 시티트라씨와 공동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모들이 모두 또는 이들 중 한사람이 완전한 에이즈로 진행되고 이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이들의 자녀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서 오는 2000년에는 이같은 아이들이 약 1백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보고서는 에이즈 감염 부모가 받게 되는 직업 상실 등 차별이 이들의 어린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이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받고 또래들과의 놀이에도 질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 어린이 중 일부는 에이즈로 부모가 죽거나 앓아누울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돈벌이에 나서거나 가족내 환자를 간병하게 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길거리로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에이즈 확산으로 이같은 어린이 차별문제가 앞으로 급증, 심각한 상황이 야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경고했다. (치앙마이 로이터=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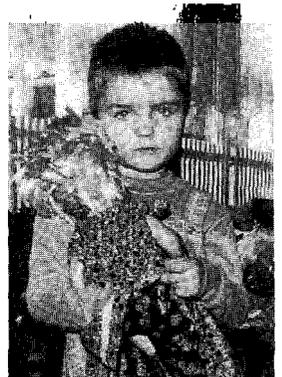
## 포경수술 에이즈 예방에 도움 된다-벨기에 연구팀 요도선 점막통해 감염 주장

포경수술이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에이즈 퇴치 계획 책임자인 벨기에인 교수 피터 피오토씨가 이끄는 연구팀은 프랑스 의학 전문지 '코티디앵 드 메드생' 최신호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에이즈는 종전에 생각됐던 것처럼 요도가 아니라 요도선의 점막을 통해 전염된다면서 그것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음경의 귀두부를 덮고 있는 포피가 에이즈 바이러스 배양에 이상적인 따뜻하고도 습기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며 이로써 에이즈 바이러스가 성기의 전기관에 감염될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면서 포경수술은 따라서 이같은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에이즈바이러스 감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 90%가 일생에 단 한사람의 남자인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한 적밖에 없다." 마라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에이즈협회 회장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폴란드

전문가들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요도 감염을 일으킬 위험은 수술받은 아이들에 비해 15배나 높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한때 오랫동안 귀두포피 제거에 반대해 왔으나 현재는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리 AFP=聯合) A